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

직장인·학생 참여 할 수 있게
날짜 선택해 운영
문화부 일방 운영 벗어나
민간·지자체 중심 행사로

28일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부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도입한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해 왔다.

28일엔 광주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 특화프로그램으로 ‘1930 양림썰렁’, ‘필름정거장’이 열리고 광주문화재단, 유·스퀘어 문화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문화단체들이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중앙 정부의 일방적 운영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고 평일에 행사를 진행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문화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대신,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는 점이다. 문화의 날 행사가 평일에 진행돼 직장인과 학생의 참여가 어렵고 중앙 정부에서 해당 일에만 행사를 하도록 요구,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닌 날도 피서지 등 휴가객 집중 지역에서 공연을 펼칠 ‘청춘마이크 사업’ 전라권 공연단체 ‘여름’.

방적 사업 운영이라는 불만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문화행사 주체들이 사정에 맞게 날짜를 선택해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가 직접 기획한 사업부터 운영 일을 확대한다. 청년예술가들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인 ‘청춘마이크’는 오는 7~8월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닌 날에도 피서지 등에서 문화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할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총

괄하는 책임기관도 기존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에서 비영리 민간재단법인인 ‘생활문화진흥원’으로 바꾼다.

작년 5월 설립된 생활문화진흥원은 전국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관리와 생활 문화·지역문화 인력 양성, 생활문화동호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문화가 있는 날’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문화행사도 만들 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시설과 영화

관, 스포츠시설, 공연단체 등 민간 문화시설 2000여 곳이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해 관람료 인하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문화시설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연·전시 예매사이트 등을 활용한 홍보와 온라인 생중계 제작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문화시설과 공연 정보는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 찾기 포럼

내일·7월 6일 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 광주예총(회장 최규철) 등은 29일·7월6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강당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첫 포럼(29일)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을 주제로 열린다. 좌장은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이 맡고 김하림 조선대 교수와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조성사업과 문화전당 10년의 평가와 정상화 해법’, ‘문재인 정부 공약의 실천 방안과 로드맵’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황병하 조선대 교수,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정민 전남대 교수, 한선 호남대 교수, 김석용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소순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등이 토론한다.

두 번째 포럼(7월6일)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과 관련, 박해광 전남대 교수, 염방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 진단 및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문재인 정부와 광주, 그리고 지역문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병석 아시아문화원장, 박진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허달용 광주민예총 회장, 김인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서향숙 시인 동시집 ‘바글바글 무지개 마트’ 펴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우리들 눈에 보이는 무지개는 모두 일곱 가지 빛깔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빛깔은 보는 이에게 각기 다른 감정과 느낌을 선사한다.

아동문학가이자 금초문학회 회장인 서향숙 시인이 최근 펴낸 ‘바글바글 무지개 마트’는 무지개만큼이나 다양한 소재와 고운 동심이 담긴 동시들이 수록돼 있다. 비 온 다음 하늘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얼마 지나면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무지개처럼 고운 동심을 토대로 엮어낸 아이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작품집에는 ‘미니 토마토’, ‘해님과 바람’, ‘토끼 이야기’, ‘주황 신호등’, ‘우주 기차’, ‘공깃돌 놀이’, ‘눈꽃 궁전’ 등 다양한 소재의 동시들이 담겨 있다. 저자 특유의 상상력과 아이들의 모습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들은 넘치거나 부족한 없이 정갈하다.

무지개 빛깔로 세분화된 일곱 개의 장은 저마다의 색깔과 소리, 표정으로 독자들을 맞는다. “신기한 물건들이/ 넘치도록 쌓여 있는 마트/ 모두들 들어와 볼래요?// 하늘을 나는 의자/ 점점 커지는 풍선 집/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을 바꾸는 인형/ 노래하는 나무/ 커졌다 작아졌다 도깨비 방



망이/ 다시 열리는 별 나무/ 초콜릿이 나오는 비밀 상자...’(‘바글바글 무지개 마트’ 중에서)

표제시 ‘바글바글 무지개 마트’는 온갖 물건과 상품들이 진열돼 있는 마트를 소재로 한 시다. “물건 이름표와 가격 밑에 놓인 상자에 그득히 돈이 쌓여 가”지만 입출구에는 “불우한 이들을 돕는 데 쓰입니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무지개처럼 다양한 마트 내부의 풍경을 묘사하지만, 속내는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자는 화자의 의도를 아름답게 담아낸다.

저자는 “유년의 잊지 못할 추억 속에 엄마와 무지개는 아름다움과 따스함, 포근함으로 수놓아져 있다”고 밝힌다.

한편 서 작가는 명지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방정환문학상, 새빛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작품집 ‘연못에 놀러 온 빗방울’, ‘자음 모음 놀이’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래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



박진현의 문화카레

“순천역 앞엔 작은 책방이 있다. 순천역에서 기차시간이 남았다면 어정쩡하게 플랫폼을 서성이지 말고 순천역 앞 작은 동네서점 ‘책방 심다’에 가보자.”(구선아의 ‘여행자의 동네서점’ 중)

그녀의 말 대로(?) 지난달 순천 여행길에 ‘책방 심다’에 들렀다. 순천역 인근 재래시장 골목길 건물 1층에 들어선 책방은 노랑색 페인트로 꾸민 덕분인지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었다. 책방 앞에 도착하자 유리창 맨 아래에 적힌 문구가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씨앗을 심고 싶

다. (정보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붙여놓은 곳이다.

이 코너는 독자들이 책 광고와 표지에 현혹돼 책을 선택하기보다 진짜 좋은 책을 고르기를 바라는 주인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이 밖에도 ‘책방 심다’에선 정기적으로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독서모임, 저자 초청 강연 등 지역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연중 진행된다. 이쯤 되면 책방이리기가보다는 문화사랑방에 가깝다.

최근 광주 동명동 푸른길에도 아담한 ‘책방 심가네박씨’가 문을 열

힘내라! 동네책방

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상 좋아 보이는 젊은 여성이 방문객을 맞는다. 15평 규모의 책방 가운데에는 7~8명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에 좋은 나무 탁자가 놓여 있다. 일 반 대형서점에선 느끼기 힘든 아늑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손길 가는 대로 책장을 넘기다 보니 30분이 훌쩍 지나간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책방 심다’에는 여행·시집·사진·에세이·그림책 등 다양한 장르의 400여 권이 진열돼 있다. 책 표지를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한 서가의 풍경이 마치 갤러리 벽에 전시된 그림을 마주하고 있는 듯 하다.

‘책방 심다’의 핫코너는 책 표지도 모른 채 책을 사는 ‘Blind Date with a Book’ 서가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책과의 소개팅’이라고 할까? 30대의 홍승용·김주는 주인 부부가 대중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좋은 책들을 골라 포장한 뒤 그 위에 내용과 저자를 추측해보는 해시

었다. 주인은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모임 ‘인문지행’을 이끌고 있는 박해용·심숙옥 부부다. 두 사람의 성(姓)에서 따온 책방이름이 정겹다. 특히 ‘책방 심가네박씨’는 작은 서점들보다 공간이 한층 넓어 인문학 모임을 즐기는 공간으로도 제격이다.

책방이 사라져가는 시대, 근래 개성있는 콘텐츠를 내세운 책방들이 하나 둘씩 동네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그 옛날, 책방은 단지 책을 사는 곳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양식을 얻는 밤상이었고, 각박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공간이었다.

요즘 동네책방의 가장 큰 매력은 독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담은 새로운 책들의 발견이다. 그러나 ‘책방 심다’ ‘책방 심가네박씨’와 같은 동네책방이 우리 곁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자주 들러 책과 친해지자. 동네책방이 늘어나는 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므로.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목사골역사탐험대’ 중학생 참가자 모집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중학생을 대상 독립운동 답사 프로그램 ‘목사골역사탐험대’ 참가자를 26일부터 7월14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지방보훈청이 후원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답사 장소는 광주백범기념관, 독립기념관(천안),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안동) 등이며, 9월 2~3일 1박2일

동안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독립운동 현장을 보고 느끼며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와 독립운동에 대해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자리다.

선착순 40명 모집(인솔교사 8명 제외)이며 참가하고 싶은 학생은 홈페이지(www.najusim.or.kr)에서 신청서, 학부모동의서를 내려받아 E-mail 전송 또는 팩스(061-334-5396)로 보내면 된다. 문의 061-334-539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